

<http://dx.doi.org/10.17703/JCCT.2021.7.3.27>

JCCT 2021-8-4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Factors influencing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최숙희*, 변은경**

Sook Hee Choi*, Eun Kyung Byun**

요약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정도를 확인하고,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연구참여자는 B시의 간호대학생 20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수,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test, ANOVA, 피어슨 상관계수,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3.83 ± 0.62 점이었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t=2.118, p=.037$), 삶의 성취감($F=3.851, p=.023$)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윤리적 가치관($r=.153, p=.028$), 비판적 사고성향($r=.477, p<.001$), 전문직 자아개념($r=.566, p<.001$)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beta=.254, p<.001$), 전문직 자아개념($\beta=.418, p<.001$)으로 나타났고, 설명력은 35.1%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의사결정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in nursing students and to provide the basic data of to control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Data were collected from 205 nursing students in B city and analyzed by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using SPSS/WIN 22.0. The degree of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in nursing students was 3.83 ± 0.62 .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with respect to gender($t=2.118, p=.037$), achievement of life($F=3.851, p=.023$).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and ethical value($r=.153, p=.028$),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r=.477, p<.001$), and professional self concept($r=.566, p<.001$). The factors affecting the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of the study subjects wer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beta=.254, p<.001$), professional self concept($\beta=.418, p<.001$),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35.1%. Through this research requires the fellow study to determine the factors affecting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Ethical Valu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 Concept, Ethical Decision

*정회원, 영산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제1저자)
**정회원, 경남정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1년 5월 26일, 수정완료일: 2021년 7월 15일
게재확정일: 2021년 7월 25일

Received: May 26, 2021 / Revised: July 15, 2021
Accepted: July 25, 2021
*Corresponding Author: byunek@hanmail.net
Dept. of Nursing,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 Korea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인간과학으로 간호학 교육은 간호에 대한 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도덕적으로 성숙한 인간을 양성하는 전인교육을 목표로 한다[1]. 또한 간호는 대상자와 간호사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며, 간호사가 어떤 가치기준에 근거하여 간호실무를 행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2]. 따라서 미래의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들에게 과학적인 전문지식과 실무역량뿐만 아니라 윤리적 가치관,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을 함양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3].

간호사들은 윤리적 결정을 내려야 하는 임상현장에서 합리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므로 자신은 물론 타인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옹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 확립과 함께 윤리적인 지식에 근거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4]. 윤리적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는 간호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간호사를 준비하는 간호대학생도 임상실습을 하는 동안 다양한 윤리적 의사결정 상황에 노출되면서 갈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5]. 이러한 스트레스나 갈등상황은 간호대학생에게 간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때부터 윤리적 문제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의사결정 능력과 윤리에 대한 의식을 기르는 것이 요구된다[6].

윤리적 문제를 인식하고 인식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의사결정을 하며, 스스로 내린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을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7]이라 하고, 간호대학생은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을수록 합리적인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6].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판적 사고성향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 업무에 있어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개인적인 성향이다[8]. 비판적 사고성향은 다양한 임상현장에서 윤리적 판단과 윤리적 해결을 가능하게 하고 윤리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시 되고 있다[9].

간호는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전문직이므로 다른 어떤

직업보다도 윤리적 가치관의 정립이 요구되며[10],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따른 의사결정은 타인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11]. 간호학생 시기의 윤리적 가치관은 졸업 후 간호사의 윤리적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호윤리 교육을 대학에서부터 실무와 사례를 중심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12].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이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고 효율적인 간호윤리 학습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간호대학생은 윤리적 가치관 형성을 위해 간호윤리 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전문직 자아개념을 함양하기 위해서도 요구된다[13]. 간호사가 간호현장에서 자신의 역할에 대한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으면 전문직 자아개념이 낮아지게 된다. 간호대학생 시기에 긍정적인 전문직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13] 이를 통해 간호사가 되어 자신에게 주어진 간호상황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것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은 생명윤리의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어[14] 윤리적 의사결정이 간호사의 전문직 역할의 하나로 전문직 자아개념이 형성되면 다양한 윤리적 상황에서의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Bang[15]의 연구에서도 윤리교육은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고, 간호전문직 자아개념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전문직 자아개념이 윤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지 확인하는 것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향상을 위한 전문직 자아개념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관련된 연구가 일부 이루어졌으나[6][14][15][16]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임상현장에서 간호실습이 이루어진 3, 4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3, 4학년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를 확인하고,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

감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B시의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해당 학과의 동의를 얻어 연구목적, 설문 내용 및 작성 방법을 설명하고 자료수집에 대한 동의를 얻은 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 수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표본 수를 산출한 결과 유의수준 .05, 검정력 .95,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1개로 하여 산출한 결과 필요 대상자 수는 178명이었다. 자료수집은 2020년 6월 1일에서 14일까지 진행되었다. 탈락율을 고려하여 230부를 배부하여 212부를 회수하였고, 응답이 불성실한 7부를 제외한 205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윤리적 보호를 위하여 연구자의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 승인(YUIRB-202008-HR-078-02)을 받았다.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 연구참여자의 권리, 익명성 보장 등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참여자가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음을 알리고 동의서에 서명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여 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였다.

3. 연구도구

1) 윤리적 가치관

윤리적 가치관 측정도구는 Schlenker와 Forsyth[18]에 의해 개발된 윤리적 개념 척도(EPQ: Ethics Perception Questionnaire)를 기초로 Park[19]가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Likert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가치관이 높음을 의미한다. Schlenker와 Forsyth[18]의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0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72로 나타났다.

2) 비판적 사고성향

Yoon[20]이 개발한 비판적 사고 성향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지적 열정/호기심 5문항, 신중성 4문항, 자신감 4문항, 체계성 3문항, 지적 공정성 4문항, 건전한 회의성 4문항, 객관성 3문항의 7개 하위영역의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비판적 사고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Yoon[20]의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4였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9로 나타났다.

3) 전문직 자아개념

Arthur[21]가 개발한 간호 전문직 자아개념 도구를 Sohng와 Noh[22]가 번안하고 간호대학생에게 적합하도록 수정한 Seo[23]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전문직 실무 16문항, 만족감 7문항, 의사소통 4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자아개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Seo[23]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3으로 나타났다.

4)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Sulmasy 등[24]이 개발한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self-efficacy) Scale(PECS)를 Laabs[25]가 수정·보완하고, Kim[26]가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윤리적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Laabs[25]의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96이었고,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88로 나타났다.

4.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간의 상관관계는 피어슨 상관관계수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서 '여학생'이 160명(78.0%)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평균 24.28세였고, '23-24세'가 80명(39.0%)으로 가장 많았다. 학년은 '3학년' 116명(56.6%), '4학년' 89명(43.4%)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없음' 103명(50.2%), '있음' 102명(49.8%)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는 ' 좋음'이 103명(50.2%)이 가장 많았다. 학과 만족도는 '중'이 119명(58.1%), 삶의 성취감은 '중' 95명(46.3%)으로 가장 많았다(Table 1).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N=205)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Gender	Female	160	78.0
	Male	45	22.0
Age (year)	21-22	66	32.2
	23-24	80	39.0
	≥25	59	28.8
	M±SD	24.28±3.30	
Grade	3rd	116	56.6
	4th	89	43.4
Religion	No	103	50.2
	Yes	102	49.8
Health state	Good	103	50.2
	Moderate	90	43.9
	Not good	12	5.9
Satisfaction of major	High	73	35.6
	Middle	119	58.1
	Low	13	6.3
Achievement of life	High	82	40.0
	Middle	95	46.3
	Low	28	13.7

2.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3.80±.46점, 비판적 사고성향 3.77±.44점, 전문직 자아개념 2.95±.39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3.83±.62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표 2.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

Table 2. Degree of Ethical valu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 Concept,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N=205)

Variable	M±SD	Min	Max
Ethical value	3.80±.46	2.80	5.0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77±.44	2.37	5.00

Professional self concept	2.95±.39	2.05	4.00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3.83±.62	2.00	5.00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t=2.118, p=.037), 삶의 성취감(F=3.851, p=.023)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후검정한 결과 삶의 성취감은 '하' 보다 '상'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이
Table 3. Difference of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05)

Characteristics	Categories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M±SD	t/F(p)scheff's
Gender	Female	3.87±.64	2.118 (.037)
	Male	3.68±.51	
Age (year)	21-22	3.87±.67	.441 (.644)
	23-24	3.85±.59	
	≥25	3.77±.61	
Grade	3rd	3.85±.64	.441 (.660)
	4th	3.81±.59	
Religion	No	3.81±.64	-.534 (.594)
	Yes	3.86±.59	
Health state	Good	3.88±.66	.627 (.535)
	Moderate	3.80±.56	
	Not good	3.70±.66	
Satisfaction of major	High	3.96±.59	2.471 (.087)
	Middle	3.77±.62	
	Low	3.72±.65	
Achievement of life	High ^a	3.95±.60	3.851 (.023)
	Middle ^b	3.80±.61	
	Low ^c	3.59±.63	

4.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의 관계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윤리적 가치관(r=.153, p=.028), 비판적 사고성향(r=.477, p<.001), 전문직 자아개념(r=.566, p<.001)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윤리적 가치관은 비판적 사고성향(r=.319, p<.001), 전문직 자아개념(r=.174, p=.013)과는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비판적 사고성향은 전문직 자아개념(r=.527, p<.001)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4. 대상자의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의 관계
 Table 4. Correlation between Ethical value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 Concept,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N=205)

Characteristics	Ethical valu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self concept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r(p)			
Ethical value	1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19(<.001)	1		
Professional self concept	.174(.013)	.527(<.001)	1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153(.028))	.477(<.001)	.566(<.001)	1

표 5.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Table 5. Affected Factors of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N=205)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627	.405		1.547	.123
Ethical value	-1.562	.080	.000	.000	1.00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55	.097	.254	3.653	<.001
Professional self concept	.658	.112	.418	5.890	<.001
Gender	.068	.086	.046	.796	.427
College life satisfaction [†]	.025	.074	.020	.337	.736
R = .606 R ² = .367 Adjuste R ² =.351 F= 23.060 p<.001					

[†] Dummy variable: College life satisfaction(High=1, Middle, Low=0)

5.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과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성별과 삶의 성취감을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확인한 결과, 잔차의 분포는 정규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수 간의 다중 공선성을 검증하였을 때 공차한계는 .632-.960으로 0.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인자(VIF)는 1.042-1.582로 10보다 낮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인 Durbin-Watson의 통계량이 2.163로 2에 가까워 잔차의 자기상관성에도 문제가 없었다. 다중회귀분석한 결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회귀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F=23.060, p<.001), 수정된 결정계수(R²)은 .351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35.1% 설명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β =.254, p<.001), 전문직 자아개념(β =.418, p<.001)으로 나타났다.

IV. 논 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 정도를 확인하고,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결과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3.82±0.6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Lim[6]의 연구에서 3.54점, Kim과 kim[16]의 연구에서 3.57점으로 나타난 결과보다 높았다. Lim[6], Kim과 kim[16]의 연구대상자가 1, 2, 3, 4 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연구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결과에 따른 차이로 보여진다. 실습이 이루어진 3, 4학년을 단순히 윤리철학이나 간호윤리 등 이론적인 학습만이 아닌 실제 실습을 통해 임상현장에서 윤리적인 의사결정의 상황을 경험함에 따라 윤리적 의사결정의 자신감이 높아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차이에서는 성별, 삶의 성취감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는 종교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6]와 성별, 학년, 종교, 임상실습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결과[16]와도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여학생이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이 높았으나 Kim과 kim[16]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 4학년이 1학년보다, 임상실습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 보다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16]는 본 연구 결과 임상실습 경험이 있는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이 높게 나타난 결과를 뒷받침한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성별, 학년별, 임상실습 경험 유무에 따른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확인하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과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윤리적 의사결정과 윤리적 가치관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 결과[27], 윤리적 의사결정과 비판적 사고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 결과[6][27],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전문직 자아개념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 연구 결과[15]와 유사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윤리적 의사결정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으로 나타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비판적 사고성향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연구 결과[6]와 유사하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윤리적 가치관이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28]와는 차이를 보였다. 전문직 자아개념이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선행연구는 없으나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전문직 자아개념, 임상적 의사결정 능력과 자율성이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전문직 자아개념과 임상적 의사결정 능력이 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결과[29]를 통해 간호사의 윤리적 의사결정 능력은 전문직 간호의 핵심으로 자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인인 것을 알 수 있다[30]. 또한 간호현장에서의 간호사들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고려가 강조되고 올바른 가치관으로 간호대상자의 상황에 따른 올바른 윤리적 결정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어[31]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소통 자신감의 증진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예비 간호사인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간호대학생이 간호사로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 자아개념의 향상을 위한 교과목 학습과 다양한 교과 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V.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의 정도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의사결정의 자신감은 성별, 학년별, 임상실습 유무에 따른 차이가 나타날 수 있어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은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 사고성향, 전문직 자아개념과 정적상관관계와 윤리적 의사결정의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비판적 사고성향과 전문직 자아개념을 확인하였다. 또한 윤리적 가치관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과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아 추후 연구가 필요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본 연구에 의의가 있으나 일부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전체 간호대학생에게 확대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와 윤리적 의사결정 자신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중재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References

- [1] M.A. Lee, "The efficacy of ethics education on the moral judgement of nursing students", *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Vol. 12, No. 2, pp. 177-188, 2009. DOI: <http://dx.doi.org/10.35301/ksme.2009.12.2.177>
- [2] Y.S. Kim, J.W. Park, M.A. You, and Y.S. Seo, "Empowerment and ethical sensitivity of nurse in the hospital",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10, No. 4, pp. 485-493, 2004.

- [3] M.S. Kim, "Influence of moral sensitivity and ethical values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the Nursing Education*, Vol. 21, No. 3, pp. 382-392, 2015.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5.21.3.382>
- [4] H.G. Kim, "Analysis of decision-making in ethical dilemma cases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Administration*, Vol. 9, No. 3, pp. 459-480, 2003.
- [5] J. Sinclair, E. Papps, and B. Marshall, "Nursing students' experiences of ethical issues in clinical practice: a New Zealand study", *Nurse Education in Practice*, Vol. 17, pp. 1-7, 2016. DOI: <https://doi.org/10.1016/j.nepr.2016.01.005>
- [6] M.H. Lim, "Effects of moral sensitivity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n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9, pp. 610-618,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9.610>
- [7] D.P. Sulmasy, G. Geller, D.M. Levine, and R.C. Faden, "Medical house officers' knowledge, attitude, and confidence regarding medical ethics",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Vol. 150, No. 12, pp. 2509-2513, 1990. DOI: <https://doi.org/10.1001/archinte.1990.00390230065008>
- [8] H.J. Yang, "Relationship betwee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nd problem solving abil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4, No. 12, pp. 6387-6394,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12.6387>
- [9] M.S. Yoo, and H.S. Park,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of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Bioethics Association*, Vol. 11, No. 1, pp. 51-60, 2010.
- [10] Y.M. Kwon, "A study on moral judgement and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the Nursing Education*, Vol. 8, No. 1, pp. 17-18, 2002.
- [11] C.H. Kim, and S.Y. Jeong, "The effects of debate classes based on an ethical decision-making model on ethical knowledge, class satisfaction, and ethical value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0, pp. 405-414, 2014. DOI: <http://dx.doi.org/10.14400/JDC.2014.12.10.405>
- [12] M.W. Park, "The patterns of change in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the Nursing Education*, Vol. 6, No. 2, pp. 199-217, 2000.
- [13] M.Y. Moon, "Effects of ethical values and nursing professionalism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before applying nursing ethics education in nursing college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8, No. 9, pp. 305-314, 2018. DOI: <http://dx.doi.org/10.21742/AJMAHS.2018.09.07>
- [14] S.Y. Bang, "The effects of ethics education on nursing students' professional self concept ethical dilemma and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1, No. 1, pp. 568-576, 2020. DOI: <http://dx.doi.org/10.5762/KAIS.2020.21.1.568>
- [15] E.A. Kim, and N.Y. Kim, "Mediation effect of biomedical ethics awareness between moral sensitivity and perceived ethical confidence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Vol. 26, No. 5, pp. 511-520, 2020. DOI: <http://doi.org/10.1111/jkana.2020.26.5.511>
- [16] H.J. Hwang, "The effects of action learning-based nursing ethics education of nursing students on ethical decision making confidence and ethical values",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20, No. 24, pp. 221-237, 2020. DOI: <http://dx.doi.org/10.22251/jkcci.2020.20.24.221>
- [17] B.R. Schlenker, and D.R. Forsyth, "On the ethics of psychological research",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3, No. 4, pp. 369-396, 1977. DOI: [http://doi.org/10.1016/0022-1031\(77\)90006-3](http://doi.org/10.1016/0022-1031(77)90006-3)
- [18] H.S. Park, "Evaluating the ethics of controversial advertising issues and moderating effects of ethical ideologies", *The Korean Journal of Advertising*, Vol. 11, No. 3, pp. 147-163, 1990.
- [19] J. Yoon, "Development of an instrument for the measurement of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nursing", doctoral dissertation, Catholic University, Seoul, 2004.
- [20] D. Arthur, "The develop of an instrument for measuring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nurse",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Newcastle, Australia, 1990.
- [21] K.Y. Sohng, and C.H. Noh, "An analysis study of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of hospital nurses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6, No. 1, pp. 94-106, 1996.

- [22]W.H. Seo, "Nursing college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and their satisfaction with clinical nursing practicum",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2007.
- [23]D.P. Sulmasy, G. Geller, D.M. Levine, and R. Faden, "Medical house officers' knowledge, attitudes, and confidence regarding medical ethics", *Archives of Internal Medicine*, Vol. 150, No. 12, pp. 2509-2513, 1990. DOI: <http://doi.org/10.1001/archinte.1990.00390230065008>
- [24]C.A. Laabs, "Confidence and knowledge regarding ethics among advanced practice nurses", *Nursing Education Perspectives*, Vol. 33, No. 1, pp. 10-14, 2012. DOI: <http://doi.org/10.5480/1536-5026-33.1.10>
- [25]C.H. Kim, "The relationship among ethical dilemma, professional values, ethical confidence of clinical nurses", Master's Thesis, Chungnam University, Daejeon, 2014.
- [26]M.J. Oh, J.M. Lee, "The effects of professionalism, critical thinking and ethical decision making on the nursing ethical values of nursing student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11, pp. 181-195, 2017. DOI: <http://dx.doi.org/10.14257/ajmahs.2017.11.14>.
- [27]Y.H. Jeon, K.I. Jung, H.S. Song, and E.S. Na, "Factors influencing ethical confidence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8, No. 3, pp. 501-512, 2017.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7.18.3.501>
- [28]S.H. Park, "Impact of nursing professional self-concept,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y,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autonomy of clinical nurse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Vol. 9, No. 4, pp. 325-334, 2015.
- [29]M.H. Sung, and O.B. Eun, "Professional autonomy and clinical decision making ability, in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 17, No. 2, pp. 274-281. 2010.
- [30]M.S. Yoo, K.C. Shon, "Effects of nursing ethics education on biomedical ethics awareness, moral sensitivity and moral judgement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Bioethics Association*, Vol. 12, No. 2, pp. 61-76. 2012.